

축산경제신문 김재민 기자



우리 축산업의 마지막 블루오션 오리산업

소비자들 오리고기 가치 높게 인정...성장잠재력 무궁무진
산업 대중화 위한 후방산업 육성에 몰두할 때

블루오션(Blue Ocean)의 사전적 의미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2009년의 오리산업을 정리하는 키워드로 우리 농업 그중 축산업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으로 감히 말하고 싶다. 대부분의 농산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정채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리산업의 성장 속도는 농축산업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른 산업군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이다.

5,000~6,000억원 대를 오가던 오리산업 총 생산액이 2008년 1조1544억원으로 무려 전년대비 98.2% 증가했다는 발표는 오리산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축종 관계자들도 깜짝 놀라게 했는데 특히, 이 같은 성과는 오리업계를 가장 어렵게 하는 AI가 발병

한 가운데 얻은 성과라 그 의미가 크다.

총 생산액 1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오리산업이 우리 농업과 축산업의 변방 산업에서 벗어나 우리 농촌의 주요 소득 작목으로서, 또 우리 농업 주요 10대 품목이자 축산부분 5대 축종으로 당당히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소비자 오리고기 가치 높게 본다

오리산업 총 생산액은 지난해 1조1544억원에 이르렀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오리고기 생산량이 2007년 4,218만7,000수에서 2008년에는 114.8% 증가한 4,841만4,000수가 생산됐지만 총 생산액은 2007년 5,824억 원에서 두 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료비 폭등에 따른 생산비를 오리고기가





격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것은 소비자들이 높은 지출에도 불구하고 오리고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 즉, 오리고기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주요 축산물의 1인당 소비량을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오리의 총 생산액이 닭고기에 근접한 상황이지만 대중성으로 표시될 수 있는 1인당소비량은 계속 9kg, 돈육 19.2kg, 우육 7.6kg에 비하면 오리육 1.75kg은 매우 초라한 성적표로 대중성에 있어서는 낙제점을 받았지만 생산비 대비 소득 발생은 한우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색육과 적색육을 장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오리고기만의 독특한 특징 때문으로 소비자들의 오리고기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생산량만 받쳐 준다면 앞에서 말한대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산업의 압축 성장... 성장 잠재력 이끌 재료가 부족하다

오리산업은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잠재력을 실제 가치로 이을 오리고기 생산에 필요한 자재는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앞만 보고 고군분투하고 달려왔지만 고지를 앞에 두고 실탄이 충분치 못해 현재의 위치에서 방어만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인 현재 오리산업의 현실이다. 필자는 오리산업의 이러한 약점을 압축성장의 폐해라 말하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 초 내수 위주의 균형발전 전략이 아닌 수출 위주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구사하며 농업 등 일부 산업의 희생을 강요했고, 이들 산업의 희생을 발판 삼아 중화학 공업 및 제조업 등을 단기간 내에 일으키며 산업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성장은 많은 부작용도 낳았는데 노사간의 극한 갈등이나 내수 시장의 부실, 중소기업의 부진, 사회 안전망의 부재, 사회양극화, 인플레이션의 만성화, 환경파괴 등은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로 다가왔다. 남들이 200년 만에 이룬 것을 30년 만에 이뤄냈다는 자랑도 잠시 이러한 문제점을 잘 해소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압축성장의 신화도 무너지고 말았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했던 관행, 기술과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 싼 노동력에 의지해 상품을 수출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었고 세계시장의 흐름과 자본시장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던 산업화 성공신화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후 IT산업에 대한 투자 등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노력의 성과로 10여년 만에 국가 부도라는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지만 압축성장의 병폐들은 지금도 여기저기 남아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압축성장 병폐 극복 방안 마련해야

갑작스럽게 2009년의 오리산업을 이야기하다 말고 왜 압축성장을 이야기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만큼 우리 오리산업도 대한민국 경제의 압축 성장을 빼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압축성장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여러 약점들을 관리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단기간에 쌓은 위상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오리산업은 선도 농가들이 미래를 내다 본 투자와 뒤 이어 닭 계열화를 모방한 경영체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비교적 가공이나 생산 기반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내는 데는 성공을 했다.

하지만 기술과 원자재를 모두 수입했던 국내 산업화 초기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가공부분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후방산업이 부재는 오리산업의 최대 약점으로 오리 생산 즉, 농장을 기준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는 시장 즉 종오리나 사료, 동물약품 등의 후방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종자 문제는 오리업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 단 두 나라의 육종회사에 의지하고 있는 오리 종축업은 오리산업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면서 산업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종오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영국이나 프랑스에 AI와 같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오리업계는 수급을 맞추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종오리의 수입량마저 충분치 못하다보니 도축을 해야 하는 실용오리 중 실한 것들을 골라 종오리로 사용하는 편법까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F1 종오리라 불리는 이 종오리는 종란생산성이나 부화율 등 생산성이 낮아 결국 오리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 종사자간 단결된 위기극복 자세 필수

오리 종자부분에서의 문제점에서 알 수 있듯이 오리업계는 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해 후방산업의 재정비 등 산업 발전을 거스르는 약점을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늘 대두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축사가 대부분인 오리축상의 현대화, 원종오리농장, 외식업소에 편중된 소비기반의 다양화, 계절적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 표준화된 사양기술 개발, AI 등 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기대처 능력 확보 문제까지 오리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너무나 많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오리협회 내에 연구조직이 발족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간 오리업계는 오리협회 내에 사육, 부화, 유통 등의 분과가 설치되어 각 파트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는데 이번 연구회 발족으로 기존 회원들뿐만 아니라 업계 내외 전문가그룹들이 대폭 참여하면서 기존 협회 회원들이 생각했던 문제의식을 넘어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방안들이 도출되고 여러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임의로 추진되고 있는 자조금 사업도 산업 종사자들이 의견 일치를 통해 의무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오리산업은 잠재력만 있는 산업이 아닌 실제 축산업을 주도하는 품목으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